‘두니아’, 생존과 운명 사이 치열한 서바이벌이 시작된다

가상 세계서 만들어가는 드라마틱한 이야기
‘언리얼 버라이어티’로 장르의 경계 허물어

MBC ‘두니아~처음 만난 세계’에 떨어진 10인의 생존과 운명 사이 치열한 서바이벌이 시작된다.

오는 6월 3일 처음 방송되는 ‘두니아~처음 만난 세계’(이하 ‘두니아’)는 첫 방송까지 딱 10일을 남겨두고, 24일 공식 SNS를 통해 새로운 일러스트를 공개해 눈길을 모은다. 이와 함께 첫 방송에 대한 설렘을 더욱 배가시킬 ‘두니아 사전 기대 포인트 3’을 짚어봤다.

‘두니아’는 가상의 세계 ‘두니아’에 떨어진 10인의 출연자들이 만들어가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담는다. 기존의 관찰, 리얼 버라이어티의 흐름을 거꾸로 뒤집은 ‘언리얼 버라이어티(Unreal variety)’로, 출연자가 가진 현실의 캐릭터와 ‘두니아’라는 가상 세계의 ‘경계’가 색다른 재미를 만들어낼 예정. 제작진은 다양한 극적 장치와 지금껏 보지 못한 예능적 작법으로 이를 극대화 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세상에 없던 ‘언리얼 버라이어티’의 탄생…장르의 경계를 허문다!

‘두니아’는 지금까지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새로움’을 선사한다. 그 시작에는 박진경-이재석 PD가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통해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 예능의 시대를 열어 큰 호응을 받았다. 여기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방송사와 게임사의 합작을 통한 게임 원작 예능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두니아’는 다른 예능 프로그램과 행보를 달리하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단독 티저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 론칭을 알렸고, 출연자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고스란히 담아낸 일러스트 이미지, ‘스타일 커스터마이징’ 시청자 투표 이벤트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극대화 시켰다.

‘두니아’가 현존하는 예능 프로그램들과 차별화된 점은 바로 ‘리얼’이 아닌 ‘언리얼’이라는 점이다. 유노윤호, 정혜성, 루다, 권현빈, 샘오취리, 돈스파이크, 구자성, 한슬, 오스틴강, 딘딘 총 10명의 출연자들은 각자에게 부여된 새로운 캐릭터를 입는다. 누구도 보지 못한 ‘두니아’라는 낯선 곳을 탐험하며 이들이 보여줄 ‘언리얼’한 모습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예능과 드라마를 오가는 완전 색다른 ‘언리얼 버라이어티’의 탄생에 이목이 집중된다.

◆ 미지의 新세계 ‘두니아’, 신비롭고 놀랍다…화려한 스케일X웅장한 비주얼!

‘두니아’는 콘셉트 티저 영상을 통해서 그 실체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티저 속에는 거대한 숲과 폭포, 섬, 바다, 모래해변 등 기존 예능에서는 볼 수 없는 장엄한 대자연의 모습이 담겨 있다. 상상 이상의 스케일과 웅장하고 신비로운 비주얼은 ‘두니아’라는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며, 반대로 이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10인의 모습이 더해져 묘한 긴장감을 자아낸다.

오는 6월 3일 첫 방송까지 단 10일이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 공개될 ‘두니아’의 모습은 또 어떤 놀라움을 선사해줄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두니아’에 워프 된 10명의 주인공을 맞이할 새로운 세계는 안방극장의 시청자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해줄 예정이다.

◆ ‘두니아’에 워프 된 10人의 치열한 생존 경쟁…예측불가 운명 개척 서바이벌!

‘두니아’에 워프 된 10인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는 기대 포인트다. 앞서 공개된 ‘두니아 10인 생존 포스터’ 속 ‘우린 선택된 걸까… 버려진 걸까…’라는 의미심장한 카피는 보는 이들의 시선을 모았다. 각양각색의 개성을 가진 10인의 주인공은 과연 어떤 사연을 갖고 있을지, 이들이 ‘두니아’에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지 아직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두니아’에서 오직 10명의 주인공이 만들어 낼 치열한 생존 경쟁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이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모습들을 보여줄지 기대를 끌어올리고 있다.

‘두니아’는 오는 6월 3일 오후 6시 45분 첫 방송을 내보낸다.

빌보드 뮤직어워드서 신곡 첫선…방탄소년단, 다음 목표는

2년 연속 빌보드 뮤직어워드 수상, 실시간 음원차트 석권, 새 앨범 선주문량 100만 장 돌파…. 그룹 방탄소년단의 행보가 거침없다. 새 앨범 타이틀곡 퍼포먼스 공개도 남달랐다. 지난 21일(한국시각) 미국 빌보드 뮤직어워드에서 타이틀곡 ‘페이크 러브’(FAKE LOVE) 무대를 전 세계 팬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한 것. 빌보드 뮤직어워드에서 컴백 무대를 가진 방탄소년단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그룹 방탄소년단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세 번째 정규앨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과 만났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취재진을 만날 수 있어 기분이 좋다”라고 입을 모았다. 방탄소년단이 가지고 온 좋은 소식은 한 가지가 아니다. 우선 그들은 지난 21일(한국시각) 미국 빌보드 뮤직어워드에서 2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톱 소셜 아티스트상은 빌보드 소셜50차트와 팬들의 SNS 투표를 반영해 결과를 내는 것으로 방탄소년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상을 받았다.

지민은 “어디를 든 팬들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왔다. 팬클럽 ‘아미’가 저희를 자랑스러워하는 만큼 저희도 마찬가지다. 항상 아미가 우리를 응원해주는 덕분에 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뿐만 아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빌보드 뮤직어워드에서 신곡 ‘페이크 러브’의 첫 무대를 꾸몄다. 방탄소년단을 보기 위해 빌보드 뮤직어워드에 자리한 전 세계의 팬들은 ‘페이크 러브’의 가사를 따라 부르며 ‘떼창’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에 관해 정국은 “빌보드 뮤직어워드 무대에 설 것이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신곡으로 컴백 무대를 할 수 있어서 감격스러웠다”며 “한국에서 무대를 하는 것처럼 팬들이 노래를 따라 불러줘서 감동을 받았다. 공연장에 너무 많은 팬들이 와서 큰 힘이 됐다”라고 밝혔다.

각종 기록을 내고 있는 이들의 새 앨범은 현재 빌보드 200차트에 1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빌보드는 지난 23일(현지 시각) “소셜50차트에서 무려 75주간 1위를 차지했던 방탄소년단이 이번엔 아티스트 100차트에서 지난주 10위에 이어 이번주 4위를 차지했다”며 “앨범 판매량이 크게 상승해 순위가 높아졌다.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은 다음주 빌보드 200에서 1위에 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분석했다.

슈가는 “빌보드 200 1위 예측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결과가 나와 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은 설렘 반 걱정 반이다. 물론 1위를 한다면 좋겠지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다”라고 솔직한 심경을 내비쳤다.

발매 직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새 앨범에는 타이틀곡 ‘페이크 러브’를 비롯해 총 11트랙이 수록됐다. 타이틀곡 ‘페이크 러브’는 운명인 줄 알았던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내용으로 앨범 전체의 테마를 보여준다. RM은 “이모 힙합 장르의 노래로 우울한 느낌이 드는 노래”라며 “이별의 감성을 저희만의 감성으로 표현했다”라고 설명했다.

데뷔 6년 차,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룬 방탄소년단은 “아직 물리적으로 올라갈 곳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빌보드 200차트 1위와 핫100차트 정상, 그래미 뮤직어워드 참석, 스타디움 투어 등을 다음 목표로 이야기했다. 큰 목표를 위해 현재를 즐기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RM은 “데뷔한 지 6년 정도 되니까 왜 이 일을 시작했고 끝까지 남아 경쟁했는지 돌이켜 보게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컴백쇼’를 준비하고 여름에 앞둔 투어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Mnet ‘BTS 컴백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내 활동에 나섰다.

“소확행 열풍 잇는다”…‘오목소녀’ 힐링 한판승

소확행 열풍을 이을 귀여운 작품이 또 한 편 관객들을 만났다.

영화 ‘오목소녀(백승화 감독)’는 한때 바둑왕을 꿈꿨으나 현실은 기원 알바인 이바둑에게 찾아온 인생 최대의 소확행! 오목에 오늘을 건 그녀의 전대미문 한판 승부를 담은 영화다.

17일 영화의 일부가 웹드라마 형식으로 선공개 됐고 24일 정식 개봉했다.

전주국제영화제 상영과 웹드라마 선공개 후 호평받고 있는 ‘오목소녀’는 봄날과 어울리는 영화로 손꼽히며 개봉 전부터 입소문이 퍼졌다.

백승화 감독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는 아니지만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런 의미에서 오목을 소재로 선택했다”고 ‘오목소녀’ 기획 의도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소비하고 다루는 방식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웹드라마로 선 공개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백승화 감독은 “대부분 오목을 스포츠가 아닌 단순한 보드 게임으로 알고 있고 바둑판 위에서 펼쳐지는 대결 모습이 다른 스포츠에 비해 드라마틱해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여러 방식을 고민하던 과정에서 소박하지만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제격인 웹드라마를 떠올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백승화 감독은 ‘영화를 만드는 나를 비롯해 제작진과 배우들, 그리고 관람한 관객들이 재미있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평소 좋아하는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오마주하기도 했다.

‘슬램덩크’의 유명한 대사, ‘비밀은 없다’ 속 손예진의 대사 역시 ‘오목소녀’를 통해 유니크하게 되살아났다.

유머와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세상 모든 청춘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영화 ‘오목소녀’가 관객들에게 힐링 무비로 기록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세완·안우연·이지원·장햇살 등이 열연했다.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오늘의 운세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음력 4월 11일)

▶쥐띠 그동안 허황함도 느끼고, 어려움도 많았으나 서서히 마음의 답답함이 풀려 나중에는 더 큰 기쁨으로 바뀌겠다. 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차분히 안정을 취하면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 최상이다. 새롭게 변동할 듯.

▶소띠 지금은 현상 유지에 만족하고 더 큰 것을 바라지 말라.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면 사업적인 면은 순조롭다. 다른 사람까지 마음 상하지 않을까 생각하라. 3, 5, 9월생은 애정으로 갈등하겠으니 화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호랑이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듯 겸손한 자세로 사물을 보는 안목을 기를 때 비로소 좋은 일이 생긴다. ㅇ, ㅂ, ㅁ 성씨는 갚을 것이 있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갚으라. 시간 더 끌면 큰 화가 오겠다.

▶토끼띠 사소한 일로 감정이 앞서면 큰일을 그르칠 수 있다. 침착하게 마음을 다스리라. 얼마 동안이라도 살얼음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조심하는 것이 좋을 듯. 3, 5, 7월생 승부를 가리는 것은 미련한 자기 투기심을 부리는 것이다. 행하지 말라.

▶용띠 남의 의심하는 것은 나도 진실하지 못 하다는 증거다. 나만 생각해 남에게 부담을 주면 그는 냉가슴 앓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남에게 줄 것도 생각하라.

▶뱀띠 급하더라도 느긋하게 참고 노력하라. 복잡한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각오를 다질 때 서서히 운이 열린다. 사람을 너무 믿는다든지, 자존심을 지나치게 세우면 나만 계속 비참해지니 마음을 다스리며 잠시 근신하라.

▶말띠 이웃 간에 기분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참는 것이 오늘의 액운을 물리치는 길이다. 내 겸손함을 은근히 표현해 결과적으로 존경도 받게 된다. 연애는 함께 있으면 자주 다투나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지는 사이다.

▶양띠 섣불리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차분히 판단해 처신하라. 자녀를 위해 아무리 바쁘더라도 오늘만은 관심을 두는 것이 탈선을 막는 길이다. 부부간에 비밀이 있다면 솔직히 털어놓고 의논하라. 오늘보다 내일을 위하는 설계를 해야 한다.

▶원숭이띠 뒤탈 없이 철저히 마무리해 가족에게 칭찬도 받고 행운도 따르게 된다. 꾸준히 노력해 가족, 친지와 유대관계를 유지해 더욱 길하다. ㄱ, ㅊ, ㅇ 성씨 행운이 기다리나 서두르면 모든 것을 잃을 듯.

▶닭띠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하니 권위도 높아지고 경사도 있겠다. 현명한 판단으로 무리하지 말고 순리대로 진행함이 좋을 듯. 4, 7, 9월생 애정도 포근하게 감싸주고 신경도 써주며 너그럽게 이해할 때 좋은소식 들려 온다.

▶개띠 작은 것이 모이면 큰 것이 되듯 지나친 확장보다 현재가 중요하다. 건축업이나 요식업을 하는 사람은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좋겠다. 철재를 다루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해야 득이 있음을 알 것. 4, 7, 8월생 여행길 언행 조심하라. 시비가 우려된다.

▶돼지띠 당신을 훈계하는 자를 은인으로, 칭찬하는 자를 적으로 알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행동해야 미래가 빛난다. 경쟁자가 평가하고 있으니 진실을 보이라. 애정은 혼자 짝사랑하는 격. 5, 7, 11월생 제작업자는 금전운이 온다.